

시론

중국이 보는 한반도, 그리고 북한 핵개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어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요란스럽게 보복해 오는 중국의 행태를 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더불어 한·중 수교 25년을 지나면서 발전시켜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북한 핵문제 앞에서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중국의 태도에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를 보면서 미국의 포위망을 떠올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패권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극동의 한국과 일본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에워싸듯 하고 있으며, 중국이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도광양회를 거쳐 2000년대 대국굴기에 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꿈(中國夢)으로 뻗어가려는 중국에게 이런 모양새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드를 두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압박해 오는 데는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는 “피로 맺어진 우의 관계였다”고 했으며 지난 4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였다”라고 말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자유 세력과 국경을 맞대는 것도 싫고, 과거 조공을 바쳐온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것은 더 싫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은 오래된 꿈, 과거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리고 발전적인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도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진핑의 속내가 드러난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KFF북클럽 독후감 발표회

연맹 본부는 9월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KFF북클럽 독후감 발표회를 가졌다.

정광영 부총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

에서는 1차 독후감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강윤석(행정본부), 최봄날(기획본부) 담당과 이성근(홍보미디어본부) 과장 등 3명의 발표가 있었다.

본부 사무처는 8월 1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KFF북클럽을 설치한 데 이어 9월 22일까지 독후감을 공모, 제출된 30편 가운데 6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이날 시상하고 3명이 발표를 했다.

안산 별망중 학생 본부 방문

안산 별망중학교(교장 최귀숙) 최성기 교감과 학생, 교사 등 40명이 10월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의주반공 학생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정광영 부총재의 환영인사와 박철기 조직본부장의 연맹 현황 브리핑 등 연맹 활동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가졌다.



이태건 교수 초빙 교양강좌 개최

연맹 본부는 9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정광영 부총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건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 직원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세기의 전환과 공동체윤리의 새 지평’ 주제의 강연을 통해 ‘살림살이 공동체’를 새시대 공동체 윤리로 제시했다.



10~11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10.15~11.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다문화가족과 함께 문화탐방(송파구)	10.18	전주 한옥마을	45명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노원구)	10.28	중평초교	20명
	자유아카데미(시지부)	10.31	자유회관	50명
부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서명운동(수영구)	10.18	망미1동 행복센터	50명
	독도척령의 날 행사(시지부)	10.25	정발장군 동상	50명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동래구)	10.28	안락초교	10명
대구	안보현장 견학(달성군)	10.21	을지전망대 등	90명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북구)	10.31	침산초교	100명
인천	팔죽 나누기 봉사(동구)	10.31	현대시장	500명
광주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남구)	10.25	백운광장	20명
대전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시지부)	10.31	자유회관내 추모탑	500명
울산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시지부)	10.31	남산사	300명
세종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시지부)	10.24	자유회관	4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무료급식 봉사(파주시)	10.27	평화원	120명
	환경정화 캠페인(동두천시)	10.29	보산동	40명
강원	안보지킴이 국토순례활동(철원군)	10.29	고성통일전망대	35명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원주시)	10.30	상지여고	400명
충북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학습(청주시)	10.25	판문점	45명
	북한이탈주민 초청 문화탐방(영동군)	10.28	통영, 여수	30명
충남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부여군)	10.22	부여읍	42명
	주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마당(아산시)	10.31	인주면	10명
전북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남원시)	10.23	서문로터리	32명
전남	교통안전 캠페인(목포시)	10.24	선창 일대	15명
경북	제9회 호국로 걷기대회(칠곡군)	10.28	칠곡역사너울길	1000명
경남	무료급식 봉사(밀양시)	10.31	삼문동 복지관	15명
제주	안보연수 교육(서귀포시)	10.24	다부동전적기념관	50명